

반성 없는 근대적 주체의 초상

-조연현의 1950년대 비평 연구

박근예*

|| 차례 ||

1. 서론 : 비평의 무가치성 위에 선 비평가
2. 비평 주체를 절대화하는 생리비평
3. 인간 주체를 무한히 신뢰하는 휴머니즘
4. 결론 : 반성을 모르는 근대적 주체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연현의 1950년대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주체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근거로 하는 생리비평과 휴머니즘을 고찰함으로써 반성 없는 근대적 주체를 표상하는 조연현 비평의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조연현은 객관성을 지향하는 비평은 생명 없는 무가치한 비평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비평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성을 지닌 비평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생리 비평을 주장하게 된다. 생리비평은 비평의 방법론과 논리보다는 창조적 비평-주체의 주관적 세계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비평이 담고 있는 문학 정신이 바로 휴머니즘이다. 조연현의 휴머니즘은 현대의 위기에 대응하는 문학정신이며, 불안과 절망의 분열 상태에 빠진 주체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지닌 인간 주체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처럼 조연현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주체는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며, 비이성적인 '생리'로 표현되던, 절망과 불안의 표정을 하던 간에 1950년대의 새로운 근대성을 표상하기는 어렵다. 주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체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제어 : 생리비평, 주체성, 휴머니즘, 실존주의, 근대적 주체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 서론 : 비평의 무가치성 위에 선 비평가

조연현은 1930년대 후반 시인으로 출발해서 비평가로 활동하였고, 해방 이후 우익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약했으며, 문학과 작가론을 집필한 문학 연구자 및 문학사가이기도 했다. 또한 순수문학론자답게 정치적인 돌출 행동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와 1950년대에는『문예』와『현대문학』의 주관을 역임하면서 문단 권력의 핵심 세력으로 다양한 문학인을 배출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문학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그런데 비평가 조연현에 대한 연구는 해방공간의 순수문학론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조연현은 주로 창조적 비평가로서 조명되었으며, 문학사가, 에세이스트, 잡지 편집자로서도 주목받았다.¹⁾ 이러한 연구에서는 조연현이 비평보다는 시나 소설의 창작을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숙명의식’²⁾이나, 논리나 체계를 갖춘 방법론이 아니라 ‘삶의 몸부림’으로서 비평³⁾을 이해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처

1) 조연현 연구는 해방 직후의 우익의 순수문학론의 대변자로서 조명되거나(류덕제, 『해방직후 조연현 비평연구 서설』, 『국어교육연구(경북대)』25, 1993.12, 김윤식, 『근대와 반근대』, 『한국현대비평가연구』, 강, 1996, 이현식, 『해방직후 순수문학논쟁 연구』, 『민족문학사 연구』 7, 1995.6, 김철, 『순수의 정체-붓과 칼의 일치:조연현론』, 『국문학을 넘어서』, 국학자료원, 2000), 비평을 창작으로 여기는 창조적 비평가로서 연구되거나(김양수, 『창조적 비평의 선구-조연현 문학의 비평사적 의의』, 『월간문학』, 1982.1, 천이두, 『조연현의 문학비평-창조적 비평의 길』, 『한국문학연구』15, 동국대, 1992.12, 신재기, 『조연현의 창조적 비평론 연구』, 『어문학』75호, 한국어문학회, 2002), 문학사가로서 연구되었다.(김시태, 『조연현 문학사 기술방법-문학사가로서의 조연현』, 『한국문학 연구』15, 동국대, 1992.12, 송희복, 『근현대문학사론의 전개과정』, 『한국문학사론 연구』, 문예출판사, 1995) 또 조연현의 전체 문학세계를 조망하는 김명인의 연구(『조연현, 비극적 세계관과 파시즘 사이』, 소명출판, 2004)나 조연현의 삶과 문학의 관계를 조명하는 평전의 출판(박종석, 『조연현 평전』, 도서출판 역락, 2006)도 있다.

2) 조연현, 『나와 비평』, 『휴일의 의장』, 인간사, 1957, 293-294쪽

3) 조연현, 『조연현문학전집4 문학비평』, 어문각, 1972, 11쪽

럼 조연현 비평의 연구는 주로 해방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950년대 조연현의 비평에 대한 연구는 그가 가진 영향력과 반대로 많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거쳐 남북한 문학이 분리, 정착되는 1950년대에 이르면 문학계에서 조연현의 위상과 영향력은 점점 막강해진다. 반면에 조연현이 초기에 가졌던 창조적 비평에 대한 강한 욕망은 출발할 때의 열정을 잃어갈 수록 비평의 무가치성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비평집 『휴일의 의장』의 서문에서 자신의 비평 활동을 “많은 정력을 무가치하게 소모”했으며 발표된 대부분의 글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시적인 붓장난”이었다고 술회했듯이⁴⁾ 비평은 무가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에서 ‘숙명’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조연현은 비평의 무가치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떻게 비평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

1950년대는 근대의 자기파산이기도 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성의 자기 비판을 통한 새로운 근대성⁵⁾을 구성해야 하는 시기였다. 1950년대의 비평의 장은 파괴와 폐허 위에서 실존주의, 모더니즘, 전통론, 민족문학론, 세대론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잃어버린 문학’⁶⁾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활발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연현의 비평⁷⁾이 주체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체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보여주는 생리비평과 휴머니즘을 조연현 비평의 근본적 원리로서

4) 조연현, 『휴일의 의장』, 인간사, 1957, 4쪽: “지난 약 수년간의 나의 비평생활을 회고해 볼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정력을 무가치하게 소모해 버리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스크랩되어 있는 이백자 오천매도 넘는 월평이니 시평이니 하는 지금까지의 나의 발표된 대부분의 글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시적인 붓장난이었던 것임을 요즘에야 알고 슬퍼했다.”

5) 새로운 근대성이라고 명명한 것은 한국전쟁이 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대의 자기 파산을 보여주는 한 징후이기 때문이다. 전후의 새로운 근대성의 구성은 자기파괴에 이른 근대의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

6)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99쪽

7) 조연현의 ‘1950년대 비평’의 주요 대상은 1949년부터 50년대에 발표한 비평문이다.

살펴보고자 한다.

2. 비평가-주체를 절대화하는 생리비평

해방 이후 조연현은 비평의 객관성을 부정하면서 비평가 - 주체의 창조성을 표현하는 비평만이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김동리, 서정주 등과 더불어 좌익의 중심 이념이었던 마르크스주의를 근거로 한 문학비평에 대항하는 순수문학을 옹호하면서 이러한 입장은 더욱 견고해진다. 조연현은 비평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논리가 아니라 인간이 접하는 직접적 현실로서 ‘생리’를 비평의 원리로 선택한다. 이는 주체의 창조성을 위협하는 마르크스 이념과 논리를 부정함으로써, 문학과 이념을 분리하려는 순수문학론적인 시도와 관련이 있다. 즉 문학은 이념이 아니라 작가의 생명을 표현함으로써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익 문학론의 토대가 된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을 비판할 목적으로 쓴 『논리와 생리』에서 ‘생리’가 이념과 논리보다 현실적이고 진실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문학은 논리를 중시하는 이념과 달리 ‘생리’를 통해 그 현실성과 사상성을 발현해 낸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을 ‘생의 구경적 탐구’로 보는 김동리의 견해를 그대로 자기화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조연현은 ‘생의 구경적 탐구’와 ‘생리’의 관련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함께 논의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문학적 진실이 ‘논리적 진실’이 아니라 ‘생리적 진실’이라는 점이다. 필화사건으로 유명해진 시집 《응향》⁸⁾이 추구한 “논리적 진실은 유물사관을 위해서 실천한 것”이지만 “생리적 진실이 그것을 거부”한 결과라고 평한 것처럼,

8) ‘응향’ 사건은 1946년 말 ‘문예총’ 원산지부에서 펴낸 시집 《응향》에 실린 구상의 시에 대해 1947년 대대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되었던 북한의 필화사건이다.

문학에서 보여주는 현실 일체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부정한다. 즉 문학은 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생리’에 의해 구축된다는 것이다.⁹⁾ 결국 이념과 논리에 의해서 파악된 현실은 문학의 궁극적 지향인 ‘생의 구경적 탐구’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이념과 논리에 대한 이러한 부정은 “현실은 합리적이며,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헤겔의 명제를 “생리적으로 가능한 것은 현실적일 수 있으나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현실적일 수는 없다”¹⁰⁾로 수정할 정도로 강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것의 근거가 되는 ‘생리’란 어떤 것인가?

대체로 논리가 한 개의 개념이라면 생리란 인간의 현실 그 자체일 것이다. 아무리 현실을 완벽하게 논리화하였다하더라도 논리는 현실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생리는 어느 인간이고 자기의 생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생리는 인간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현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가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생리는 생명적으로 영위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란 언제나 한 개의 가정에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결론을 위해서라면 그 결론을 초래할 수 있는 가정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생리는 항상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의 결과는 늘 운명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 결론이란 것은 논리적 필연성에 오는 것에 불과한데 비하여 생리의 결과는 현실적 필연성에서 온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논리적 가능성은 생리적으로 얼마든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생리적 가능성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여기에서 조연현의 중요한 주장은 ‘생리’가 논리를 대체하는 문학의 현

9) 조연현, 『논리와 생리』, 『전집4』, 275쪽

10) 조연현, 위의 글, 276쪽

11) 조연현, 위의 글, 275-276쪽

실성이라고 것이다. 즉 합리적이고 가설적인 논리보다는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생리가 현실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과 논리로 파악한 현실이 아니라 삶을 구체화하는 생명의 본능적 운명이야말로 ‘현실적인 필연성’이 된다. 이러한 현실성은 논리화되기 이전에 생명 그 자체의 영위이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더라도 논리화된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성과 논리로 파악하는 현실이 아닌 생명 그 자체의 현실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반이성주의는 사상이나 철학 일반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고정적이고 경직된 기준으로 자리 잡은 이념과 논리가 문학의 논리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이다. 문학은 ‘생리’, 즉 생명 그 자체의 현실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실은 인간 주체를 통해서 발현된다. 조연현이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해서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 방법론이 인간 주체보다 우위에 놓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논리가 아닌 ‘생리’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 주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떤 방법론이나 사상이 그 자체로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인간의 주체성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결국 ‘생리’란 인간 주체가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고 창조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¹²⁾ 따라서 조연현은 문학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삶은 ‘논리의 전개’가 아니라 ‘생리적 영위’이며, 본능적이고 숙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포착하려면 논리가 아닌 생리, 즉 본능적인 생명의 운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생리’가 문학의, 더 나아가 비평의 원리라는 주장은 강한 데 비해 그것이 어떻게 문학에서 발현되고, 비평행위로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비평가의 생명의 표현인 비평의 생리는 어떤 것인지 『비평의

12) 이성에 대한 반성이 주체의 해체와 분열을 의미한다면 조연현의 이성과 논리에 대한 성찰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주체에 대한 강렬한 믿음과 신뢰 위에서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논리와 생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조연현은 먼저 비평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당한 평가’라고 정의한다. 비평이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정확한’과 ‘정당한’이란 형용사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념과 논리보다는 ‘생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평에 도달하는 요건은 방법론이나 대상이 아니라 비평 주체에 달려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과학주의나 주관적 인상주의나 하는 비평의 방법론이 아니라 비평을 행하는 ‘주체’라는 말이다. 결국 비평의 생리, 즉 비평의 생명은 비평하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당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당히 평가하는 데에 반드시 주관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인상적이어야 한다는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들레르의 비평이 주관적이라고 해서 대상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테에느의 예술철학이 과학적이며 객관적이라고 해서 대상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콩트가 실증적이라고 해서 진리와 창조에 어긋났다고도 못할 것이며, 아나톨프랑스가 주관적이고 인상적이었다고 해서 그의 비평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가치를 갖지 못했다고 아무도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겐 정열이나 실증이나 과학이나 주관 이 한 개의 편리한 방법적인 형식이 아니라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히 평가하려는 그들의 생명의 한 형식이었던 것이다.¹³⁾

이처럼 보들레르, 테느, 콩트, 아나톨 프랑스와 같은 비평가들이 사용한 방법론들은 단순한 ‘방법적인 형식’ 논리가 아니라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평가하려는 그들의 생명의 한 형식”이 된다. ‘방법적인 형식’과 ‘생명의 형식’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은 비평 주체, 즉 비평가의 생명의 형식

13) 조연현, 『비평의 논리와 생리』, 『전집4』, 250-251쪽

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된다. ‘생명의 한 형식’으로서의 방법은 모방이 아니라 비평하는 주체가 발견하고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비평가가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주체로서 확립되어 있을 때 ‘모방’된 방법이 아닌 ‘발명’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주체 없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인식과 정당한 평가라는 비평의 생명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비평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론을 ‘발견하고 발명’하여 비평을 실천해낸 비평 주체가 된다. 이와 같이 비평적 주체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가 아닌 생리로 표현되는 문학의 현실성을 비평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생리비평의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조연현이 제시하는 ‘생리’는 텍스트에 대한 비평의 준거가 되는 이론이나 방법론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방법론과 대상보다 비평 주체를 우선적인 판단준거로 삼고, 주체를 통과하지 않은, 즉 주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평은 생명이 없는 비평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관화의 과정에서 비평 주체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상 인식, 즉 방법론을 거부하는 것은 비평의 폭을 좁히게 될 것이다. 대상 자체의 판단보다 주체 내부의 가치가 강조되면, 비평이 가치판단이 없는 감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연현의 다수의 실제 비평이 스스로 ‘일시적인 붓장난’이라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이를 잘 보여준다.

만약 조연현이 ‘주체 없는 방법’만이 아니라 ‘방법 없는 주체’의 문제도 고려했다면 비평을 주관성 안에만 가두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비평의 생명을 살린 비평 주체로 평가한 보들레르, 테느, 콩트, 아나톨 프랑스가 뛰어난 개성을 지닌 비평가로 불렸던 이유가 자신의 비평가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연현은 객관적인 비평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비평의 원리를 주체 내부의 문제로만 제한함으로써 비평 주체를 반성도 의심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창조자의 위치로 격상시킨다. 이러한 비평 주체의 절대화는 조연

현이 비평가로 활동하면서도 끊임없이 인식했던 비평의 무가치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된다. 즉 조연현은 비평의 객관적 논리와 방법론을 거부한 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비평가를 생리비평을 실현할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비평 주체만을 강조하는 생리비평은 끊임없이 비평의 무가치성을 인식하는 조연현의 비평적 물음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조연현이 ‘비평 주체’의 생명이 발현된 생리비평을 추구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했던 비평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먼저 비평은 같은 대상이라도 비평가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상반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평 주체의 생명을 표현한 비평의 결론은 “관념이나 공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생활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므로 비평가의 개성적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연현은 비평 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의해 동일한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지식의 부족’이며, ‘비평의 생리를 모르는 백치’라는 평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비평 대상의 판단 근거인 방법론을 거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평은 가치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기의 세계를 완성하는 ‘창작적 비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평은 가치 판단을 요구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가치판단을 통해 시나 소설과 마찬가지로 ‘가치창조’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연현에게 비평은 “대상을 판단하는 형식으로 비평하는 주체를 표현하고 완성”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비평을 창작문학으로 만드는 요건이므로, 가치창조가 없는 비평, 비평가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없는 비평은 문학의 한 형식으로 감각할 수 없게 된다. 비평이 문학이 되게 하는 것, 즉 비평하는 주체의 생명을 표현하는 비평은 ‘문학의식’¹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해서 창작과 비평의 원리는 동일한 것이 된다. 문학의 생리는 이념이나 논리에

의해 가정된 현실이 아니라, 작가의 생명의 현실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비평의 생리도 마찬가지로 비평가의 생명을 현실화하는 표현이 된다.

창작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비평, 즉 대상을 통해 자기세계를 표현하고 완성하는 비평을 창조한 비평가로 조연현이 인정했던 대표적 인물이 셰스토프이다. 『비평과 인간 - 생리적 반향아 - 셰스토프』에서 조연현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셰스토프를 ‘문예비평가’로서 주목한다. 셰스토프는 “남을 비평한다는 형식을 통하여 가장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며, “누구를 비평하던 혹은 어떤 문제를 취급하던 그 대상에 객관적인 해석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자신의 사상을 표백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였기 때문에 인간성, 즉 주체가 부각되기 어려운 비평문학에서 ‘작자의 인간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¹⁴⁾이 그 이유이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령 이런 말은 얼마나 논리적인 말인가 단지 그는 논리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 이성주의를 배격했을 따름이지 그 자신이 논리적 합리적 실증적 이성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는 왜 자기 자신도 그것에 의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부정했는가 그것은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 실증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 이상의 그것만 가지고서는 표현될 수 없는 생명의 절규에 그는 가득차 있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생명의 절규는 이성이나 신이나 그런 것으로서 정리되거나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신비적

14) 이러한 ‘문학의식’은 “단순한 논리나 개념이나 술어의 나열이나 판단이나 지식이나 교양이 문학이 아님을 분별”하는 것이며, “비평이 논리나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만을 구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소설처럼 과실을 구미하는 그러한 맛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 ‘과실’에 해당하는 문학정신과 관련된다.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 것은 ‘인간’과 관련되며, 이것이 문학정신으로서 구체화될 때 인간성을 옹호하는 휴머니즘론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15) 조연현, 『비평과 인간』, 『문학과 그 주변』, 인간사, 1958, 51쪽

인 비밀의 세계에 속해 있었던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떤 합리적인 것도 초합리적인 신과 같은 것도 그것이 일정한 권위를 가질 때 이에 대한 반역의 자세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반항적 생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뭔가 억제할 수 없는 반항적 생리가 이성의 권위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고 신의 권위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저작은 이를테면 그러한 반항의 한 형식이요 그 표정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¹⁶⁾

여기서도 비평의 근본 원리를 논리가 아닌 ‘생리’에서 찾았던 조연현의 비평의 토대가 드러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세스토프의 명제를 통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생리’라고 조연현이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세스토프라는 대상을 통해 조연현 자신의 비평세계를 표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스토프는 ‘논리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 이성주의를 배격’했고, 논리의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생명의 절규’로 인간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연현이 비평가를 절대적 주체로 부상시키면서 추구한 비평은 이성과 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의 세계’를 언어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조연현이 생각한 이상적 비평은 ‘반역의 자세’를 가진 비평가의 자기표현이다. 이성과 논리에 대한 거부, 방법론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반역의 자세’ 속에서 관철되는 ‘반항적 생리’는 비평 주체를 절대화시키는 원리가 된다. 신의 권위도 이성의 권위도 거부하는 비평 주체는 신과 이성이 해결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의 세계’를 알고 언어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절대자로 자리 잡는다.

16) 조연현, 위의 글, 57-58쪽

3. 인간 주체를 무한히 신뢰하는 휴머니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평주체의 자기표현으로서의 생리비평은 비평가의 생활과 실천의 내용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담아낸다. 조연현은 이러한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방법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문학 정신의 측면에서 주목한다. 그는 논리와 생리를 구별함으로써 생리비평을 주장했듯이, 여타의 사상이나 이념을 문학의 사상과 구별함으로써 문학만의 사상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문학의 사상은 ‘형상화’되는 것이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경제, 정치사상 등은 ‘실현’되는 것이고,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한다.¹⁷⁾ 이러한 구별이 타당·한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중요한 점은 문학은 사상에서도 여타의 분야와는 다르다는 영역의 분리를 통해 비평가의 ‘생활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문학정신으로 특화해낸다는 사실이다.

봉선화에 대한 미의식이라든지, 필립의 험벗고 굶주린 인간에 대한 애정이
라든지, 파우스트의 최후의 구원이라든지, 베르테르의 실연의 고민이라든지,
릴케의 생명의 의식이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의 방대한 관념이라든지, 지이
드의 불안의 의식이라든지, 하이네나 바이론의 사랑의 감정까지도 문학에 있
어서는 사상이라고 말했다. <...> 문학에 있어서 사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작품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기초적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무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상이나 조건 <...> 그러한 것은

17) 조연현, 『문학에 있어서의 사상성』, 『전집4권』, 268쪽: “문학에서의 사상은 정치사상이나 경제사상이나 사회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생리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사상이나 경제사상이나 그 외의 일체의 사상형태라는 것은 그가 가진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휘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시키는 것이 그 생리요 성격인 데 반하여 문학에 있어서의 사상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형상화(이 어휘에도 유의해 주기 바란다)시키는 것이 그 생리요 성격이라는 것이다. 정치사상이나 경제사상이나 사회사상은 제도를 대상으로 하지만 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여상의 작가나 작품이 가진 피상적인 혹은 부분적인 일면이요, 그것을 지도하고 유도해 나온 정치적, 경제적,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작가나 작품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작가나 그 작품의 본질적인 생명은 아닌 것이다.¹⁸⁾

문학의 사상으로 예를 든 ‘미의식’, ‘인간애’, ‘구원’, ‘관념’, ‘불안의식’, ‘사랑의 감정’ 등은 일반적으로 문학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타의 사상과는 구별되는 문학만의 사상을 언급하려다 보니 미적인 체험과 인간의 의식적이고 감정적인 제요소들을 포괄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조연현이 강조하는 것은 문학은 문학만의 질서와 사상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문학은 미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사상은 문학에서는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일면’일 뿐 작가와 문학의 ‘본질적인 생명’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문학의 사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다른 사상들을 문학에 차용함으로써 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실한 사상’¹⁹⁾을 탐색하고 추구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의 사상, 즉 문학정신은 작가의 개성적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으로서 체화된 형태가 되어야만 그 작가와 작품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본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작가와 작품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본질인 문학정신으로 조연현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²⁰⁾이다. 휴머니즘은 르네상스

18) 조연현, 위의 글, 270쪽

19) 조연현, 위의 글, 262쪽

20) 휴머니즘은 1930년대부터 지성론과 더불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김오성은 현대의 휴머니즘을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구별해서 네오희머니즘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또한 김동리는 30년대 말 신세대 작가들을 대변하면서 생의 구경적 탐구와 ‘인간성의 옹호’를 내세웠다. 이후 해방 공간에서 순수문학론을 주창했던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은 다시금 휴머니즘을 순수문학의 정신으로서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연현은 휴머니즘을 자신의 문학정신, 즉 ‘자기 자신의 진실한 사상’으로서 견지하게 된다.

이후 계속되는 “인간을 믿어보려는 최후의 보루”로서 50년대에도 여전히 요구되는 문학정신이라는 것이 조연현의 생각이다. 전쟁 체험으로 절망과 불안의식이 팽배했고 위기 담론으로서 실존주의의 영향이 강했던 1950년대의 상황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문학정신이 바로 휴머니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휴머니즘은 어떻게 폐허와 불안 위에 선 1950년대의 문학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 조연현은 현대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보다는 서구적인 근대정신이 야기한 메커니즘화한 현대적 사고방식과 인간의 주체성 상실을 내세운다. 현대의 불안이나 위기는 서구적인 의미의 근대정신을 배우면서 느끼게 된 절망의 한 상태이며, 이는 실증적인 과학주의와 분업적인 기계주의의 아래에 있었던 19세기의 절망이 근대정신으로 20세기에까지 상속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면한 현실적 정치적 위기와 절망’은 하나의 현상적인 사태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원인은 ‘극도로 메커니즘해가는 현대적 사고방식’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주체성 상실²¹⁾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휴머니즘은 상실한 인간의 주체성을 확고부동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구축하는 원리가 된다.

이처럼 당면한 현실의 위기를 서구에서 이미 경험한 절망과 불안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데서 한국적인 위기를 특수성보다는 보편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조연현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느끼는 절망과 불안과는 구별되는 조연현의 위기의식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

21) 조연현, 『현대의 위기와 문학정신의 방향』, 『전집4권』, 183쪽 : “기계(물질로 만든 기계만이 아니라 메커니즘화한 사고방식도 기계와 마찬가지로)가 이미 인간의 주인이며 인간은 그것에 종속된 불완전한 기계로 화하였다는 데 현대인의 참혹한 고통이 있으며, 이것이 현대의 모든 불안을 조성해 주고 있는 현대의 위기와 절망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것은 이러한 현대의 위기와 절망은 그것이 벌써 불길한 예상이나 절박한 목전의 다음 순간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기성의 한 사실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한 상황을 서구적이고 일반적인 상황 위에 놓음으로써 절망과 불안을 보편적인 정서로 인식하려고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학정신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양 문학인 레마르크의 『25시』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살펴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으면 아니 된다. 우주는 인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인간은 그 주인이라는 것을, 『25시』의 절망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현대에 대한 절망의 증언이 되었던 것이다. 만일 현대인이 이것을 믿었다라면 『25시』의 작자는 목사 고르가로 하여금 『25시』의 절망의 시각을 구원의 시간으로서 증언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최후의 시간의 한 시간 후”인 현대의 절망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동시에 또한 저 르네상스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졌던 것처럼 인간을 믿어보려는 최후의 미련과 보루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25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²⁾

현대의 위기와 절망을 표현한 『25시』에서 조연현이 읽어내는 것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는 일의 중요성이다. ‘인간의 주체성 상실’이라는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르네상스 정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절망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현대의 절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이 우주의 주인임을 믿는 일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현대는 절망의 시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절망과 위기의 시대일수록 “인간을 믿어보려는 최후의 보루에서 르네상스 이래로 영구히 이어지고 있는 휴머니즘의 정신을” 심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계화된 현대적 사고방식과 인간의 주체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문학 정신이 “이 우주를 인간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휴머니즘이기 때문이다.

22) 조연현, 위의 글, 185쪽

이러한 휴머니즘에서 조연현이 신뢰를 보내는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다.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작은 개인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신적인 지위를 갖는 절대적 존재이다. 신이 차지하던 자리를 인간에게 물려주는 것 같은 이러한 발상에서 근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맹신에 가깝게 인간 주체를 신뢰하는 조연현의 휴머니즘에는 현대의 불안 속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과 같다는 믿음은 위기에 빠진 근대정신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아니라 근대정신의 극단적인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절망과 불안 속에 잠식당한 인간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인간주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추상적 선언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메커니즘화한 사고방식과 주체성 상실이라는 위기에 처한 인간이 무조건의 신뢰를 받을만한 긍정적인 인간주체로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연현은 주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비평-주체의 확립을 생리비평의 핵심으로 파악했듯이, 절망과 불안에 빠진 현대의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이상적 인간 주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 위에서 구축된 휴머니즘을 문학정신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여타의 이념과 사상을 문학에서 배제하고 남겨진 근본원리인 휴머니즘은 신의 자리를 대체한 이상적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연현의 휴머니즘은 그 추상성 때문에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대의 위기를 해소하는 원리로서 비평문학 속에서 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²³⁾

23) 조연현이 휴머니즘을 문학 정신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비평에서는 주로 인생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 데 그친다. ‘가장 문학적 역량이 풍부하고 세련된 여류’로 평가한 강신재의 소설집 『회화』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인생에 대한 부정적 정신”이 강하고, 『여정』에 대해서는 인간적 동정의 발동으로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해서 나쁘게

1950년대 새롭게 등장한 신세대 비평가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비평의 신세대』에서 정창범, 홍사중, 최일수, 김종후의 비평에 대해 “휴머니즘에 대한 열렬한 신뢰와 지지”를 드러낸다고 극찬하면서 그 근거로 “메커니즘을 초극하는” 휴머니즘이 인류의 기본적인 노선임을 재인식하여 ‘인류 부동의 대원칙’과 합치된다는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조연현이 사용하는 휴머니즘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관념형태에 있어서나 그 수단방법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변천을 겪어 왔지만 그 기본적인 저류”로 작용하는 것이다.²⁴⁾

문학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사상만이 문학정신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이 글에서는 휴머니즘을 불변하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연현은 휴머니즘을 현대의 위기에 대한 역사적 대응 방식에서 역사를 초월하는 불변의 원칙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학정신으로서의 휴머니즘의 근거를 르네상스에서 찾았던 조연현이 여기에서 불변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휴머니즘을 제시한 것은 이상화된 절대적 인간에 대한 신뢰를 휴머니즘의 본질로 설정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연현은 이러한 휴머니즘이 5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실존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주장한다. 실존주의는 절망과 불안 의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현대 ‘니힐리즘’의 일종이며, 이러한 니힐리즘적 특성에서 벗어나면 그 출발지였던 휴머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존주의가 니힐리

말하면 문학정신의 방향이 일정치 않은 작가라고 평한 바 있다.(조연현, 『강신재』, 『전집6권』, 63-66쪽) 인생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로 휴머니즘 문학정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삶을 추상화할 뿐, 피와 살로 이루어진 비평의 생명을 구체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24) 조연현, 『비평의 신세대』, 『휴일의 의장』, 인간사, 1957, 74쪽: 여기서 언급된 신세대 비평가들의 글은 정창범의 『현대정신과 카톨릭시즘』(1955), 홍사중의 『현대의 지성과 신에의 접근』(1955), 최일수의 『우리문학에 있어서의 신인의 위치』(1955), 김종후의 『위기의 해명과 그 초극』(1955)이다.

증인 이유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 허무한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지 인정하기만 할 뿐이고, 그 자기가 “하나의 이상으로서 권위로서 가치로서 인정되는 길”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²⁵⁾ 결국 조연현에게 실존주의는 절망적일 경우에는 니힐리즘으로, 희망적일 경우에는 휴머니즘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니힐리즘이라는 관념형태로 나타난 휴머니즘이다. 따라서 현대적인 절망과 불안의식을 드러내는 무력한 주체가 그러한 절망과 불안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이상과 권위와 가치가 있는 주체로 확립시킬 때, 휴머니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불안과 절망 속에 빠진 주체가 아니라 권위와 가치를 갖는 이상적 인간 주체의 확립이 조연현 휴머니즘의 필수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현대문학에 표현된 니힐리즘을 이해하려면 휴머니즘과 관련된 ‘실존주의의 운명’을 경험할 필요가 생긴다.²⁶⁾ 절망적인 니힐리즘을 극복하고 휴머니즘으로 돌아오는 것, 즉 권위적이고 이상적인 인간 주체를 확립하는 휴머니즘이 바로 실존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25) 조연현, 『현대문학과 ‘니힐리즘’』, 『휴일의 의장』, 인간사, 1957, 92쪽: “19세기 ‘니힐리즘’의 구체적인 표현인 유물론적인 합리주의나 무신론이나 무정부주의같은 것이 ‘메카니즘’에서 출발된 것인데 반하여 현대‘니힐리즘’의 구체적인 표현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26) 실존주의에 대한 조연현의 이러한 관점은 60년대에 가서 논쟁의 형태로 비판된다. 조연현이 발표한 실존주의에 대한 글 『실존주의 해의』(『문예』, 1954.3-『현대와 실존주의』란 제목으로 『휴일의 의장』인간사, 1957에 재수록)를 뒤늦게 보았던 정명환은 1962년 말에 『평론가는 이방인인가-우리나라 문예비평의 입장에 관하여』(『사상계』 1962.12)를 발표하여 실존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비판한다. 이에 조연현은 『문학은 암호 이상의 것이다』(『현대문학』1963.1)를 발표해서 대응했고, 정명환은 다시 『비평 이전의 이야기-조연현 씨의 평문을 반박한다』(『사상계』, 1963.2)로 재반박하는 논쟁이 있었다. 50년대 중반에 발표된 글을 60년대에 비판했다는 사실도 재미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쟁을 야기한 원인이 1950년대를 풍미했던 실존주의조차도 휴머니즘의 한 형태로 보았던 조연현의 휴머니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온 휴머니즘이 상기한 속성을 가진 실존의식에까지 도달되었으나 현대인의 옳은 과제는 그것이 인류의 종점이 아니라 현대의 숙명적인 한 지점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 실존의식이 <...> 절망적이며 비극적인 속성으로서 나타난다면 하이데거의 말처럼 자살이나 희생으로서 그것으로부터 초월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극적 절망적인 의식으로부터 휴머니즘의 옳은 속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 실존주의는 그 절망적 비극적인 속성으로부터 다시금 발전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니이체가 ‘신은 죽었다. 신은 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러한 절망과 비극으로부터의 비약적인 한 전신이었다. 현대의 실존주의는 이러한 비약과 전신의 가능성을 실존적으로 증명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27)

이처럼 실존주의에 대한 조연현의 이해방식은 휴머니즘이라는 ‘자신의 진실한 사상’의 맥락 속에 실존주의를 위치시켜 가변적이고, 표면적인 현대의 한 정후로 보는 것이다. 즉 무목적, 부조리, 허무, 고독, 불안과 같은 것은 실존 그 자체가 아니라 실존의 속성일 뿐이므로, 이러한 속성은 휴머니즘을 본질로 하는 실존주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사상의 형태로 나타나건 휴머니즘이라는 불변의 대원칙의 표면적 속성에 불과하므로 휴머니즘의 본질을 되찾는 것, 즉 인간 주체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절망적이며 비극적인 속성’을 지닌 실존주의는 ‘자살이나 희생’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비약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실존의식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음에 이르기보다는 ‘절망과 비극으로부터의 비약적인 전신’을 이룸으로써 이상적이고 권위 있는 인간 주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실존주의조차도 휴머니즘의 일부로 이해하는 조연현의 휴머니즘은 논리로는 파악될 수 없는 ‘현실성’을 보여주는 비평주체의 세계관을

27) 조연현, 『현대와 실존주의』, 『전집4권』, 173-174쪽

담는 문학정신이지만, 전쟁 체험과 폐허 의식이라는 50년대의 생생한 현실성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이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휴머니즘은 비평정신으로서 생명력을 갖기보다는 인간 주체에 대한 무한한 믿음에 근거한 영원불변의 대원칙이라는 추상적 이념에 머물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 반성을 모르는 근대적 주체

지금까지 1950년대 조현현의 비평을 대상으로 비평의 무가치함 위에서 비평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비평 주체를 절대화하는 생리비평, 권위 있고 이상적인 인간 주체를 지향하는 휴머니즘을 살펴보았다. 논리가 아닌 ‘생리’로 파악되는 현실성을 형상화함으로써 작품을 창조하고, 대상을 통해 비평 주체를 표현하고 완성하는 생리비평은 방법론이나 논리를 배제하는 협소한 주관성의 세계에만 머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배제를 통해 확립된 문학정신인 휴머니즘은 불안과 좌절과 절망의 분열 상태에 있는 주체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외면한 채 권위적이고 이상적인 주체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결국 생리비평과 휴머니즘이라는 두 비평원리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전쟁의 폐허를 만들어낸 근대적 이성의 자기 파괴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체의 절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는 전쟁과 그 폐허 위에서 국가의 재건과 새로운 문학 전통의 구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전쟁으로 불안과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러한 전쟁을 야기한 근대 이성의 자기 파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와 이성을 거부하는 조현현의 비평은 1950년대적인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이성과 논리의 절대성을 거부하면서 주체의 절대화를 추구한 결과는 진정한 의미의 ‘반역’이나 ‘반항이 되지 못한 채, 중세의 신의 자리를 대체한 르네상스의 인간을 1950년대 한국에 불러오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조연현의 비평은 파산 선고된 근대적 이성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새로운 근대성, 혹은 반근대의 정신을 표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연현이 절대화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주체는 절망을 체험한 새로운 주체가 아니라 권위와 가치를 가진 이상적 인간이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이 우주의 주인임을 확신하는 절망도 반성도 모르는 근대적 주체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생리’로 표현되건, 절망과 불안의 표정을 하건 간에 ‘반근대’의 정신을 표상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연현, 『문학입문』, 창인사, 1954
 , 『휴일의 의장』, 인간사, 1957
 , 『문학과 그 주변』, 인간사, 1958
 , 『조연현전집』, 어문각, 1972

2.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김명인, 『조연현, 비극적 세계관과 파시즘 사이』, 소명출판, 2004
 박종석, 『조연현 평전』, 도서출판 역락, 2006
 윤지영, 『조연현의 수필문학- 인간원형의 탐색,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 보고사, 2005

3. 연구 논문

김시태, 『조연현 문학사 기술방법-문학사가로서의 조연현』, 『한국문학 연구』15, 동국대, 1992.12, 29-41쪽
 , 『조연현 평론의 세계』, 『현대문학』, 1986.11, 92-100쪽
 김양수, 『창조적 비평의 선구-조연현 문학의 비평사적 의의』, 『월간문학』, 1982.1, 182-188쪽
 김윤식, 『근대성 또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조연현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 『현대문학』, 1991.11, 70-97쪽
 , 『근대와 반근대』, 김윤식(외), 『한국현대비평가 연구』, 강, 1996, 114-143쪽
 , 『소설과 우연성의 문제-김동리, 조연현, 九鬼周造』,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2』, 아세아문화사, 1994, 109-160쪽
 , 『조연현 소묘』,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2』, 아세아문화사, 1994, 342-368쪽
 류덕제, 『해방직후 조연현 비평연구 서설』, 『국어교육연구(경북대)』25, 1993.12, 227-251쪽
 송희복, 『근현대문학사론의 전개과정』, 『한국문학사론 연구』, 문예출판사, 1995, 166-173쪽

- 신동욱, 「조연현 문학평론의 특성」, 『현대문학』, 1991.11, 54-68쪽
- 신형기, 「비평의 열림과 민족모순의 심화-해방기와 한국전쟁 이후 비평의 흐름」, 『문학사상』, 1995.4, 255-268쪽
- 이현식, 「해방직후 순수문학논쟁 연구」, 『민족문학사 연구』 7, 1995.6, 58-93쪽
- 이형기, 「조연현의 감성논리-그의 비평과 에세이의 상관관계」, 『한국문학연구』15, 동국대, 1992.12, 43-53쪽
- 천이두, 「조연현의 문학비평-창조적 비평의 길」, 『한국문학연구』15, 동국대, 1992.12, 11-27쪽
- 한형구, 「편집자-비평가로서 조연현(趙演鉉)의 생애와 문예지 《현대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제9집, 2001

Abstract

The Portrait of the Modern Subject That does not Reflect on Itself
- A Study on Jo, Yeon-hyun's Criticisms in the 1950s -

Park Geun-Ye

This study examined physiology criticism that contradicts the methodology and logic, and humanism, the literary spirit, as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Jo, Yeon-hyun's criticism on the basis of Jo's literary criticisms in the 1950s that sought to find the values of criticism through the valuelessness of criticism.

Physiology criticism opposes lifeless criticism that produces the same conclusions by the methodology and logic not accumulate by the subject, and pursues the creation of values that express and complete the critic's own world through the accurate judgment of an object. After all, the creator-subject remains in a world of subjectivity that excludes the methodology and logic. Humanism, the literary spirit established through the exclusion of ideology and ideas, disregards an in-depth exploration of the subject in the state of anxiety, frustration and desperation by giving absolute beliefs to the human subject, the object of literature.

The principles of Jo, Yeon-hyun's criticism lack reflection on the subject as the creator of literature, and the human subject as the object of literature. The subject that does not reflect on itself finds it difficult to express the spirit of the 'anti-modern' whether it is manifested in expressions of irrational 'physiology' or desperation and anxiety. The subject believed absolutely and unlimitedly by Jo, Yeon-hyun's is not the powerless and disrupted subject that has experienced desperation, but the desirable human being with dignity and values, and modern subject that ensures the human being is the owner of the universe by developing scientific technology.

key-words : physiology criticism, humanism, modern subject, subjectivity

박근예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 (430-018)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64-18 귀빈타운 5동 302호

전화번호 : 031-442-8897, 010-8431-8897

전자우편 : geunyea@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